

롯데, 한일 합작법인 출범 초읽기... '오너 3세' 신유열 전면에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신동빈 회장 '원롯데 전략' 결실 아시아 식품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신유열 실장, 해외사업 전략 주도



지난 5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된 롯데 식품 계열사 합작법인 사무실 개소식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 진영동 싱가포르JV 대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이시구로 일본 롯데제과 글로벌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 계열사의 합작 법인이 이달 초 싱가포르에 공식 출범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한일 원롯데 전략'이 그룹 핵심 사업 영역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30일 공식 자료를 통해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마치고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 설립은 한·일 내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해외 사업 확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독심이 반영됐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

해 왔다. 실제 양사의 협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024년 대비 14.4% 신장한 1조 2047억 원을 기록했다. 일본 롯데제과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00억 원의 해외 매출을 올렸다.

특히 '글로벌 메가 브랜드 1호'인 빼빼로는 양사의 해외 유통망 전략 운영에 힘입어 지난해 24%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33%의 가파른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신설 법인은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사업별로 나누어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생산, 영업, 물류 인프라를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양국 식품사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이끈다.

향후 합작법인은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 ▲원재료 구매부터 물류·마케팅 등 생산·판매 과정 효율화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제품 출시 ▲성장 잠재력 높은 신규 시장 진출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식품 합작법인 설립은 그룹 전반으로 확대 중인 '원롯데 전략'의 일환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9월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합작법인 '롯데호텔스 재팬'을 설립한 바 있으며, 롯데 바이오로직스 투자 유치, 롯데벤처스 '엘캠프 재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일 롯데 식품의 아시아 사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메가 브랜드를 함께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 환율... 하반기 완만한 하락 전망

상반기 증가기준 평균 1484.6원 전문가들 환율 고점수준 도달 분석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은행 환전소 모니터에 달러 원화 구입가가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화의 기록적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의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2원 오른 1549.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31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 주간종가 평균은 1484.6원으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한 1998년 상반기의 1493.1원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달러 수급 불균형에 환율 상승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원화값이 기록적인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

달러 환율의 급등 요인을 달러의 공급-수급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 매도하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 기업과 개인의 달러 수요가 맞물리면서 고회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9일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70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45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판매 대금으로 달러를 구매하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은 원·

달러 환율의 주된 상승 요인이 된다. 주요 수출 기업들도 달러 매도를 늦추고 있다. 역대급 수출액에도 해외 재투자 등을 이유로 기업의 달러 수요가 늘었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달러 보유를 늘리는 기업도 많아졌다.

◆ 중앙은행 금리 결정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전망도 원화값 약세의 요인이다. 중동 사태의 해소 전망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중인 반면, 고용지수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환율을 끌어 올린다.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거래소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올해 말까지 1차례(25bp, 1bp=0.01%p)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79.6%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50bps) 이상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37.7%에 달했다. 반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로 전망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한이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 하반기 환율 상승 제한적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환율이 고점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에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 재편에 따른 비달러화 통화의 전략적 포지션에 노출되면서 달러 값이 하락하고, 원화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달러적자가 무역흑자를 압도해 고회율을 유지하겠지만,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누적된 달러 재고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 환율 구간으로 달러당 1380~1560원을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중소기업계 "AI 전환, 정부지원 필요"

상의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계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AI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 투자 부담이 겹쳐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AI3대 강국 전략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공공 인프라 개방, 금융·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

10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AIG3를 위한 K-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AI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류 차관은 "AI는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이자 전략자산"이라며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AI 육성 정책을 전폭 지원해 미국, 중국에 버금

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GPU 등 AI 인프라 확보를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확보, 산업·공공·지역·과학 분야 AX 프로젝트 추진, 피지컬 AI·AI 반도체·AI 원천기술 등 기술 경쟁력 강화, 일반 국민과 기업인부터 최고급 전문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AI 핵심인재 양성,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 시기에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과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과 기존 직원 재교육을 위한 AI 인재 사다리, 비용 부담이 큰 AI 기술 개발을 돕는 기술 마중물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든든하게 깔아주는 AI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지 않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AI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형 AI 활용 전문인력 양성, AI 인프라 구축, AI 지원 통합 창구 운영, 공공 AI 인프라 개방, 맞춤형 피지컬 AI 컨설팅 및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윈스톱 포털 도입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원관희 기자 wkh@

李 대통령 지역화폐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잠자는 카드·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면서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라며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사용되지 않는 카드·쇼핑 멤버십 포인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게 많다면서 "물렸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전환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전환)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 이게 약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